'현대미술과 인문학' 연중강좌 첫 강사 탈리아.V 교수

"한국미술 해외화단서 주목 광주작가 과감히 도전하라"

"광주작가 여러분, 해외 화단에서 한국 미술을 주목하고 있으니 도전하세요."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의 강의를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미국의 유명 전시기획자인 탈리아 브라초폴러스(64)는 해외 무대에서 달라진 한국 미술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미술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한국 미술이 최근 미국 내에서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서서히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감동 있는 깊이 있어야 좋은 작품"

"현대 미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생 컬렉터들이 아시아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만한 한국 작가들도 대거 등장해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3시에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과 인문학'의 첫 강사인 그녀가 주제를 '뉴욕 속의 한국미술'로 정한 것도 이 같은 국제 화단의 변화를 지역 작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그녀는 미국 내 대표적인 '광주통'이다. 지난 2002년부터 뉴욕에서 열린 황영성(조선대 명예교수), 김대원(조선대 교수), 이매리, 박소빈씨 등 지역작가들의 전시회는 그녀의 '작품'이었다. 또 이매리씨의 지난해 전시에는 직접 평론도 써 해외 언론에 알리는 등 '광주 사랑'이 남다르다.

광주 미술에 대해 그녀는 "과거에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치중하거나, 기술적인 화려함만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년 전부터 작품의 깊이가 느껴지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해 머지않아 중국 대신 한국 미술이 뉴욕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상록전시관서 '뉴욕 속… '강의

그녀가 강조하는 해외 화단에서 주목받는 법은 단순하다. 작품에 담긴 철학이나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이 개념이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관람객들이 생각할수록 복합적인 깊이가 느껴지고, 다음에 또 그 작품을 보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은 작품이다"면서 "이 같은 작품 요소들을 갖춘 좋은 광주 작가들이 많아 올해에도 이들을 알릴 수 있는 뉴욕 전시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지역 작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작가 리서치 작업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미술이 해외 화단의 주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 미술에 관심을 갖는 미술평론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출간을 목표로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책의 막바지 작업 중이며, 이를 통해 광주 뿐 아니라 한국작가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 그녀는 광주 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작가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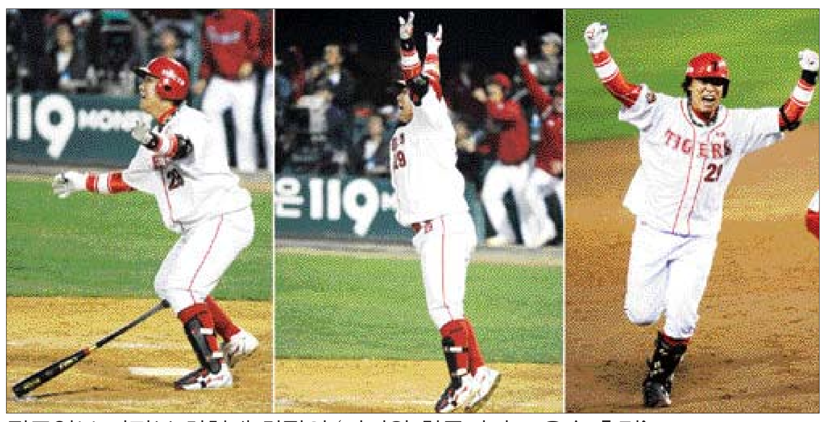
그녀는 "다양한 외국 작가들이 광주에서 작업을 하며 지역 작가들과 교류를 한다면 굳이 지역작가들이 뉴욕에 가지 않고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작가들을 불러올 수 있다면 더욱 많은 광주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태생의 브라초폴러스는 뉴욕헌터칼리지 졸업한 뒤 뉴욕시립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동양문화 전공)를 취득했다.

미국 존 제이 칼리지 교수,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뉴욕을 근거지로 전시비평, 저술, 전시기획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사진부 최현배 차장의 '나지완 한국시리즈 우승 홈런'

'보도 사진'의 매력은…

광주·전남사진기자회 23~3월 1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며 피와 땀으로 건져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감동과 전율이 보도사진의 매력이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영근)는 오는 23~3월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보도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일보 나명주 사진부장, 최현배 차장, 김진수 사진기자를 비롯해 사진기자회 회원들이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취재현장에서 취재한 사진 130여 점을 선보인다.

온 국민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던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용산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또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성공과 KIA 타이거즈 통산 10번째 우승의 순간도 담아냈다.

한편 광주 전시에 이어 3월3일~9일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순회 전시회가 열린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뉴욕서 '코리안 아트 쇼'

한국화랑협 내달 3~7일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한국화랑협회와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3월 3~7일 뉴욕의 전시장인 첼시 라 베뉴에서 한국 화랑 24곳이 참가하는 '코리안 아트 쇼'(Korean Art Show)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코리안 아트 쇼에는 가나아트 갤러리와 갤러리 현대, 표 갤러리 등 국내 대표적인 갤러리들이 참여해 이우환과 민병헌, 홍경택, 김창렬, 배병우, 전광영 등 작가 100여명의 작품 200여점을 아트페어 형식의 전시로 소개한다.

KIAF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로 한국 작가들이 아트페어 형식으로 뉴욕에서 한꺼번에 소개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뉴욕 한국문화원의 갤러리 코리아에서는 코리안 아트쇼 참가 갤러리 중 23곳이 각 갤러리의 대표작을 한 점씩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린다.

주최 측은 전시장에 KIAF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아트페어들에 참여하는 외국 갤러리를 대상으로 KIAF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